



우리의 섬김 * 그들의 교회 * 하나님 나라

Love Cambodia 조용규 신유미 선교사 기도편지



쑤어스다이 츠남트마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살롬!! 축하합니다. 아직도 여전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요,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리브교회 주일 예배



여기 캄보디아는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학교와 교회가 다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올리브 교회도 2022년 새해 첫 주일부터 공식적으로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올리브 선교센터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 참 아쉬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예배를 드리게 되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인원 제한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를 하며, 오전 8시 1부 주일학교 예배,

10시 2부 청소년 청장년 예배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리브 선교센터에서 함께 생활하며 신앙 훈련을 받았던 학사 학생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찬양 인도와, 주일학교 교사, 어린이 예배 설교자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

지난 12월 한달 동안 센터에 함께 사는 학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성탄 축하행사를 할 수 없었는데 마침 한국에 계신 몇몇 성도님께서 마스크와 생활용품을 보내주셔서 300개의 선물을 포장하여 가가호호 마을 전체를 심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새해부터 다시 시작되는 예배시간도 알리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섬김 * 그들의 교회 * 하나님 나라

Love Cambodia 조용규 신유미 선교사 기도편지



올리브 선교센터 (Olive Mission Center)



올리브 선교센터는 매일 새벽 5시 예배실의 불이 켜 집니다. 센터에 함께 사는 학생들과 매일 아침 새벽기도와 Q.T 나눔 시간을 가집니다. 선교사역도 성령의 능력과 기도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훈련을 통해 학생들의 삶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올리브 선교센터에 입소를 위해 신입생들이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3-4명의 학생들을 추가로 모집하는데 지난주에 '깜뽕툼' 시골마을에서 '다누'라는 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프놈펜 왕립대학교(Royal University Phnom Penh) 사범대에 입학하여 공부하며 올리브선교센터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4년 동안 이곳에서 신앙 훈련을 잘 받아 신실한 크리스천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73:28)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새해부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유초등부 아이들로부터 청소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배를 통해 다시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올리브 선교센터에 새롭게 입소해서 함께 살게 될 신입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며, 학업을 잘 감당하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 신실한 주의 제자로 자라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저희 가정에 두 자녀 하준이(6학년) 하원이(4학년)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이번 1월부터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키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가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축복의 땅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022. 1. 11.

연 락 처: (855)-92-995-628 (현지 전화)

070-8098-2291 (070 인터넷 전화)

메일주소: coramdeo09@daum.net (조용규 선교사)

oasis-98@daum.net (신유미 선교사)

카 톡 ID: 조용규 (ivf082), 신유미 (oasisbaby082)